

KIA '막내·쌍둥이' 잠재우고 1위 굳힌다

<kt> <LG>

T 타이거즈 전망대

2위 kt·4위 LG와 진검승부
선발·센터라인 등은 안정적
부진·과부하 불펜 활약 관건

■ 2017 KBO리그 순위

(4월 1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4	11	0	3	0.786	0.0
2	롯데	14	9	0	5	0.643	2.0
3	kt	14	9	0	5	0.643	2.0
4	LG	14	8	0	6	0.571	3.0
5	NC	14	7	0	7	0.500	4.0
6	SK	14	7	0	7	0.500	4.0
7	두산	14	6	0	8	0.429	5.0
8	넥센	14	5	0	9	0.357	6.0
9	한화	14	5	0	9	0.357	6.0
10	삼성	14	3	0	11	0.214	8.0

시즌 초반부터 잘 나가는 '호랑이 구단'이 원정 6연전 길에 오른다.

1위 KIA 타이거즈가 18일부터 수월 kt 위즈파크에서 kt위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KIA는 21일 잠실로 장소를 옮겨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뜨거운 4월을 보내고 있는 팀들의 힘겨루기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막내 kt'는 두꺼워진 방패로 9승5패를 기록, 롯데 자이언츠와 공동 2위에 올라왔다. 초반 화려한 타력으로 6연승을 달린 LG는 2.71의 팀 평균자책점(1위)을 기록하는 등 투·타의 밸런스로 4위에 랭크됐다.

초반 KIA에는 대진운이 따랐다. 올 시즌 연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를 시작으로 역시 연패 중이었던 SK 와이번스를 안방에서 만났다. 이어 한화 이글스-두산 베어스-넥센 히어로즈 등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던 팀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5연승 위닝 시리즈를 달렸다. 특히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은 위닝시리즈를 넘어 시즌 첫 스위치로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상위권에서 자리싸움을 하고



지난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즈 KBO리그' 넥센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7-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스위치를 달성한 KIA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있는 두 팀을 연달아 만나게 됐다. 선발진과 센터라인 그리고 4번 타자는 KIA의 믿는 구석이다.

5승1패를 기록한 지난 주 흥건회를 제외한 임기영-헨터-팻딘-양현종이 나란히 승리를 챙기며 선발진의 힘을 보여줬다.

임시 선발로 출발해 선발진의 셋별로 떠오른 임기영은 두산을 5이닝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앞선 SK전 6이닝 실점의 후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던 임기영은 두 번째 선발 도전 끝에 생애 첫 선발승을 올렸다.

2017 시즌 첫 완투승의 주인공 헨터와 '좌완 특급' 양현종의 연속 행진도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3승을 쟁겼다. 팻딘도 불운을 날리고 넥센전 완투승으로 한

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선발진을 보좌하는 센터라인의 힘도 좋다. '에비역 키스톤' 김선빈과 안치홍은 수비는 물론 공격의 중심이다. 안치홍이 16일 넥센전 역전 적시타를 터트리는 등 클린업 트리오의 뒤에서 허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있다. 김선빈도 최근 두 경기 장영-몸살 증세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지만 타선의 전면에 배치돼 공격의 매서움을 더하고 있다. 김선빈과 안치홍이 2·3번에 나란히 배치됐던 지난 13일 두산 원정에서는 4-2로 앞선 9회 2사에서 김선빈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안치홍의 2루타로 홈을 밟았다.

9회말 KIA가 1실점을 하며 4-3으로 진땀승을 거뒀던 만큼 두 사람이 만든 1점은

승리의 결정적인 점수가 됐다. 안정된 수비의 중점수 버나디나도 지난주 3개의 도루를 기록하는 등 스피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트레이드 효과'도 눈에 띈다. 새로운 안방마님 김민식은 레이저 송구로 두산과 넥센의 발을 묶었다. 안정된 리드로 투수진을 끌고 가는 김민식은 타석에서도 4경기 연속 안타를 터트리며 복덩이가 됐다. 이명기도 우익수 첫 선발 출전에서 아찔한 포구 실책을 기록했지만 이후 좋은 수비와 함께 3안타 경기도 장식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불펜이다. 계속된 부진으로 임창용이 마무리 자리에서 물러나 있지만, 대안으로 테스트를 받는 '젊은 피'

한승혁과 김윤동이 예측불허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한승혁은 개막 후 11경기 중 9경기에 등판해 9이닝이나 소화했다. 또 다른 필승조 좌완 심동섭도 8경기에 출석하는 등 시즌 초반부터 불펜은 부진과 과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시범경기에서부터 강행군을 해온 3투수 김주형의 체력 저하도 고민거리다. 다행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이범호가 16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을 재개하면서 복귀를 앞두고 있다.

KIA가 원정 6연전에서 1위 지키기와 불펜 안정화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이할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 봉송로 주자선발대회 인문 설명회에서 홍보대사 '피겨퀸' 김연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평창 성화 인수단 참여

'피겨퀸' 김연아(26)가 그리스 올림픽 피아에서 채워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를 한국으로 옮겨오는 인수단에 참여한다.

김대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문화행사국장은 17일 "김연아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에서 성화를 직접 들고 트랩을 내려와 성화봉송 주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김연아는 오는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워지는 평창올림픽 성화 인수단에 포함돼 직접 그리스에서 우리나라로 성화를 옮겨오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연아는 이에 대해 "2006년 동계올림픽과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다"며 "평창올림픽에서는 그리스에서 성화를 옮겨오는 인수단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인으로서는 영광이다. 국내 동계종목 꿈나무들도 성화봉송에 참여해 올림픽의 열정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추신수 마수걸이 홈런 등 5타점... 팀은 역전패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7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신고했다.

추신수는 17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텍사스의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첫 타석에서 시즌 1호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0-1로 밀린 2회초 1사 1, 2루에서 시애틀 선발투수 아와쿠마 히사시의 초구인 시속 117km 커브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점포를 쏘아 올렸다.

텍사스는 3-1로 역전했다.

추신수는 3회초 2사 1, 2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조나선 루크로이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온 직후였다. 추신수는 이와쿠마의 시속 135km 스피리터를 밀어쳐 좌익수 왼쪽을 깊게 찌르는 2루타로 남은 주자 2명을 싹쓸이했다. 추신수의 시즌 1호인 이 2루타로 텍사스는 6-1로 앞섰다.

6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바뀐 투수 좌완 제임스 파조스에게서 파울을 4차례 걸어냈지만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6-6으로 따라잡힌 8회초, 추신수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불넷을 골라 나간 뒤 대주자 멜리노 드실즈로 교체됐다.

추신수는 이날 3타수 2안타(1홈런) 5타점 1득점 1볼넷 1삼진으로 맹활약하면서 시즌 타율을 0.229에서 0.263(38타수 10안타)으로 끌어 올렸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1-2로 앞선 9회말 좌익수로 교체 투입됐다.

플래툰 시스템에 따라 기용되고 있는 김현수는 이날 토론토가 원순투수인 J.A. 헐을 선발투수로 내세우면서 김현수는 타석 기회를 받지 못했다. 경기는 볼티모어의 11-4 승리로 끝났다. /연합뉴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왼쪽)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시애틀 매리너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경기 2회 첫 타석에서 3점 홈런포를 터트린 후 카를로스 고메스(가운데) 등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19일 홈서 세번째 선발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이 19일(한국시간)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시즌 세 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시즌 첫 번째 선발 등판에서 대결한 원수 투수 카일 프리랜드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지난해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86일 만에 홈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이 정규리그 개인 통산 60번째 선발 등판을 맞아 설욕과 함께 시즌 첫 승리를 돌리며 시즌이 열린다.

류현진은 지난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2

패, 평균자책점 5.79로 좋지 않았다. 두 번 모두 5이닝을 넘기지 못했다. 구속 저하로 집중타를 허용한 바람에 중반이 되면 어려움을 겪었다.

류현진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시즌 세 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시즌 첫 번째 선발 등판에서 대결한 원수 투수 카일 프리랜드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지난해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86일 만에 홈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이 정규리그 개인 통산 60번째 선발 등판을 맞아 설욕과 함께 시즌 첫 승리를 돌리며 시즌이 열린다.

류현진은 지난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2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회원제 앞서

지난해 1966만명...114만 많아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을 넘어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17일 발표한 2016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은 1966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852만 명을 웃돌았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내장객이 많아진 것은 골프장 내장객 통계를 뽑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6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350만 명으로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614만명보다 갑절가량 많았다.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을 넘어선 것은 대중제 골프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2015년

218개에서 지난해 196개로 줄었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2015년 265개에서 290개로 증가했다. 특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24개에 이르렀다.

2006년에는 대중제 골프장이 불과 93개 뿐이었다. 당시 회원제 골프장은 157개였다.

대개 '퍼블릭'으로 부르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린피를 비롯한 각종 이용료가 저렴하다. 소수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는 회원제보다 이용이 쉽다는 점도 대중제 내장객이 늘어난 이유다.

문턱이 낮은 대중제는 홀당 내장객이 4135명으로 회원제 3838명보다 많았다. 18홀 코스를 기준으로 대중제는 평균 7만 4430명, 회원제는 6만9084명을 손으로 받았다. /연합뉴스